

순천시 기업유치 시동...올해 30개사 목표

포스코와이드와 투자협약...옛 승주CC에 체류형 숙박시설 조성 에너지 저장시설·이차전지 등 상반기 5개사 8000억 투자 유치

순천시가 민선 8기 지역경제 회복을 내걸고 올해 30개 기업을 유치할 계획을 세웠다. 시는 올해 상반기 5개사 8000억원 규모 투자협약을 맺으며 투자유치 행보 시작을 알렸다. 순천시는 지난 23·24일 ㈜포스코와이드, ㈜로컬엔컴퍼니와 업무협약을 잇달아 맺었다. (주)포스코와이드와는 지난 23일 프리미엄 레저타운 조성을 위한 2000억원 규모의 업무협약을 맺었다. 포스코와이드는 옛 승주컨트리클럽(CC)에 9만평 규모(29만7520㎡) '포라이즌 프리미엄 레저타운' 조성을 계획하고 있다. 이곳에 업무와 휴양, 레저스포츠가 모두 결합한 휴양 콘도미니엄을 건립해 순천시의 숙원사업인 체류형 휴양·관광을 완성한다는 생각이다. 순천시와 포스코와이드는 체류형 숙박시설 조성으로 지역 내 소비를 촉진하고 200여 명의 고용 효과를 만들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시는 다음 날인 24일, 지식정보문화기업인 ㈜로컬엔컴퍼니와도 협약을 체결했다. 오는 4월에는 ESG에너지 저장시설 제조업체와 업무협약도 예정됐다. 또 이차전지 소재를 생산하

는 대형 기업과는 6000억원 규모 투자유치 업무협약을 앞두고 있다. 국가산업 핵심인 이차전지 산업 기업을 유치하면서 130여 명의 일자리가 만들어질 것으로 시 측은 내다보고 있다. 순천시는 코로나19 사태 확산과 국내외 경기 침체를 겪으며 부진했던 기업유치를 올해 활성화한다는 계획이다. 2020년부터 지난해까지 순천시는 모두 65개 기업과 1조2000억원 규모 투자협약을 맺었다. 올해 동안에는 30개사를 유치할 목표를 세웠다. 순천시는 지난 2월 '사람과 기술, 자연을 잇는 생태경제 글로벌 표준도시'를 내걸고 민선 8기 5대 핵심전략을 수립, 발표했다. 순천의 100년 미래 먹거리를 책임질 5대 핵심전략으로는 ▲우주 ▲바이오·푸드테크 ▲디지털 ▲ESG 경영 ▲웰니스(웰빙+피트니스) 산업 등이 이름을 올렸다. 오는 4월부터 10월까지 2023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를 성공적으로 치른 뒤 정부 신성장 4.0 기조에 맞춰 '넥스트 순천' 밑그림을 그리겠다는 것이다. 순천시는 민선 8기 일과 거주, 놀이를 한 번에 해



노관규(왼쪽 다섯번째) 순천시장과 김정수(왼쪽 여섯번째) 포스코와이드 대표이사가 지난 23일 '포라이즌 프리미엄 레저타운' 조성을 위한 업무협약'을 맺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순천시 제공>

결할 수 있는 '직주락(職住樂) 특화산단'을 6곳 조성할 방침이다. 이들 특화산단은 신규 일자리가 1만8000명 창출하고 기업 35개소를 유치할 전망이다. 순천시가 조기 조성을 추진하고 있는 산업단지에는 선월농공단지(13만2231㎡), 해룡2-2일반산단(59만5041㎡), 도시첨단산업단지(19만1735㎡) 등이 있다.

노관규 순천시장은 투자 협약식에 참석해 "이번 순천 투자를 결정해주신 기업 대표들에 거듭 감사 인사를 전한다"며 "기업이 잘 돼야 양질의 일자리가 생기는 만큼 일사천리 기업 섬김 시책을 통해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고 어려운 시기에 고용주 뿐만 아니라 근로자 모두가 상생할 수 있는 기업 친화 정책을 펼치겠다"고 말했다. /순천=김은중 기자 ejkim@kwangju.co.kr

광양시-포스코 수소 사업 육성 업무 협의

지난해 정부 '수소도시 조성사업' 공모에 선정된 광양시가 포스코 그룹 임원진을 찾아 수소생산 기반시설 구축을 위한 적극적인 투자를 요청했다. 정인화 광양시장은 최근 서울 그린센트럴빌딩 회의실에서 손병수 포스코홀딩스 수소사업추진단 상무 등과 광양시 수소산업 육성을 위한 업무협의를 했다. 광양시는 국토교통부 '수소도시 조성사업' 공모에 선정됐다. 시는 도심에 수소 생산·저장·이송·활용의 초기 수소 생태계를 구축할 방침이며, 포스코 광양제철소에서 생산된 수소를 배관을 통해 수소도시에 공급하는 방안을 협의하고 있다. 광양시는 수소 생산과정에서 발생하는 이산화탄소를 포집해 저장·활용하는 '블루수소'와 수소 생산과정에서 이산화탄소를 적게 배출하는 '청록수소' 등 청정수소 생산 기반시설을 구축할 목표를 세웠다. 이날 협의에서 손병수 상무는 포스코의 2050 탄소중립 달성을 위한 포스코 그룹의 수소사업 추진 전략을 설명했다. 포스코 그룹은 7대 핵심사업으로 수소 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포스코는 수소환원제철 공정 전환 등을 통해 연간 700만t의 수소 생산 공급 체계를 구축할 방침이다. 그는 "국외에서 전량 수입에 의존하고 있는 중중과 소다회를 생산하는 자원 재활용 친환경 사업을



정인화(왼쪽 두 번째) 광양시장이 지난 21일 포스코홀딩스 수소사업추진단과 광양시 수소산업 육성을 위한 업무협의를 하고 있다. <광양시 제공>

추진하고 있다"며 "해당 설비를 광양에 구축해 생산된 수소를 광양 수소도시에 공급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공정은 이산화탄소를 포집·활용(CCU)하는 수소 생산 방식이 핵심이다. 광양시는 아직 인증 기준이 마련되지 않은 '청정수소' 생산 방식에 대한 정책 건의 등 행정적 지원을 할 계획이다. 정인화 광양시장은 "제철소 탈황 공정과 이차전지 부산물로 발생한 폐기물을 활용하는 블루수소 생산설비 광양 투자계획이 빨리 확정되기를 기대한다"며 "이번 업무협의를 통해 포스코에서 당면한 블루수소 인증 문제와 규제 문제에 대해 시 차원에서 적극 협력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광양=김대수 기자 kds@kwangju.co.kr



김순호(가운데) 구례군수와 피아웬니스, 삼미건설 관계자들이 지난 23일 '구례온천CC 조성'을 위한 업무협약'을 맺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구례군 제공>

구례군 산동 온천지구 관광 활성화 나선다

피아웬니스·삼미건설과 온천CC 조성 업무 협의

구례군이 산동면에 골프장 건립을 추진하며 산동 온천지구 관광 활성화에 나선다. 구례군은 지난 23일 (주)피아웬니스, (주)삼미건설과 '구례온천CC 조성사업(가칭)' 추진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협약에 따라 구례군 산동면 관산리 일대에 150만㎡ 부지에 27홀 규모 골프장을 만들 계획이다. 사업비는 모두 1000억원가량 들어갈 것으로 보이며, 구례군은 사업 인허가 등 행정절차를 지원한다. 피아웬니스는 사업시행자로서 기획, 설계, 각종 인·허가, 자금 조달 및 집행 등 사업 전반을 총괄한다. 삼미건설은 시공과 책임 준공 업무를 수행한다. 민선 8기 구례군은 치유산업 선도도시와 체류형

관광도시를 내걸고 대규모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지난 2월에는 전남도, 아이튠스생명연합회와 '항암농식품 제조공장·치유병원 건립'을 위한 투자협약을 맺기도 했다. 협약에는 산동면에 2170억원 사업비를 들여 항암농식품 제조공장과 치유 병원, 휴양시설을 건립하는 내용이 담겼다. 김순호 구례군수는 "산수유와 온천 등 천혜의 자원을 보유한 산동면에 조성된 골프장은 지리산 정원, 구례수목원 등 인근 관광 자원과 연계해 더욱 효과를 낼 것"이라며 "집체한 산동 온천지구를 살려서 체류형 관광 활성화와 지역 경제 발전을 도모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구례=이진택 기자 lit@

곡성 '농촌애 올래'

섬진강·태안사 관광상품 개발 트레킹·비건쌀 요구르트 체험

곡성군이 농촌관광 활성화를 위해 '트레킹상품-농촌애'를 개발하고 본격 홍보에 나선다. 곡성군은 농림축산식품부 지역단위 농촌관광사업으로 선정된 '농촌애 올래' 관광 상품을 개발해 운영한다고 26일 밝혔다. '농촌애 올래' 관광상품은 섬진강트레킹, 태안사술타레킹, 비건쌀코지요구르트 체험 등으로 구성됐다. 이중 섬진강트레킹과 태안사술타레킹은 로컬가이드가 동행하지 않으며 여행자가 사전 미팅을 통해 편안하고 안전하게 여행하면 된다. 섬진강과 태안사 숲을 걸으며 지역인이 생산한 간식 꾸러미와 곡성 특산물인 담긴 기념품을 받을 수 있다. 국립곡성치유숲에서 진행되는 숲치유프로그램에도 참여할 수 있다. 비건쌀코지요구르트 체험 프로그램은 건강한 발효밥상과 쌀코지(쌀누룩) 요구르트 만들기로 구성돼 있으며 집에서 직접 만들어 볼 수 있도록 만들기 키트도 제공된다. 곡성군미래교육재단은 지역의 자연 환경을 활용한 곡성꿀농자학교 숲·생태 교육 프로그램을 진행한다. 곡성종합농학교는 초등 저학년까지 참여할 수 있는 '꿀농자 트리 클리밍'을 비롯해 섬진강 침실습지에서 놀면서 자연을 배울 수 있는 '자연과 놀자' 프로그램이 진행된다. /곡성=박종태 기자 pjtk@kwangju.co.kr

'여수 시민보험' 보장 확대

개 물림 사고 등 추가

여수시가 올해 '여수 시민안전보험' 보장 항목에 '사회재난 사망'과 '개 물림 사고'를 추가했다. 시는 '여수 시민안전보험'에 지난달 말 기준 27만4000명(등록 외국인 포함)의 모든 여수 시민을 가입시켰다고 26일 밝혔다. 여수 시민이라면 전국 어디에서든 재난·안전사고를 당할 때 최고 2000만원까지 보험금을 받을 수 있는 보험에 가입된다. 여수시는 지난 2020년부터 전 시민 가입을 1년 단위로 추진해왔다. 시민안전보험에 가입하는 데는 2020년 1억4000만원, 2021년 2억4000만원, 지난해 3억1000만원 등의 보험료가 들었다. 보험 보장항목은 가입 첫해인 2020년 11개(1000만원 한도)에서 올해 15개 항목(2000만원 한도)으로 늘어났다. 올해는 전국에 안전 경각심을 불러일으킨 이태원 참사를 계기로 '사회재난 사망'(2000만원 한도) 항목을 추가 보장하기로 했다. 개 물림 사고 응급실 내원 진료비(10만원)도 신규 보장 항목에 들었다. /여수=김창화 기자-동부취재본부장 chkim@

그린궁

GREEN GOONG PRIME EVER 120

프라임에버 120

다시 맞이하는
빛나는 아름다운 여성의
건강한 봄날을 위하여!

소비자상담실 080-234-6588

그린궁프라임에버120은 소중한 여성의 피부 건강과 저하된 면역력을 증진시켜 주며 장 건강 그리고 뼈 건강에도 도움을 주어 활력있는 여성의 아름다운 건강을 위한 여성 건강기능식품입니다.

그린알로에 건강기능식품은 단 1%도 중국산 원료를 사용하지 않습니다.